

< 질병의 뿌리 >

우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3~4개월이나 계속되고 있다. 그사이 수많은 생명이 사라졌고, 세계 경제가 마비되어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아직도 현대의학은 코로나19의 예방백신과 치료약인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코로나19는 대부분 사람이 자연적으로 항체를 보유하는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 이후에야 백신과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될 것이다. 그러나 그사이 수많은 사람이 죽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의 모든 시스템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다.

지구 오염이 심해질수록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그에 대한 현대의학의 대응 시스템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난 이후부터 그에 맞는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기 시작해 빨라야 1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개발되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그동안 현대의학이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코로나19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현대의학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왜 현대의학은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현대의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질병의 뿌리’라는 책을 쓴 최인호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기자 : 변호사가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었습니까?

최변 : 의학을 전체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의사였다면 방대한 의학지식에 파묻혀 질병을 전체적으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했고, 그것들을 극복한 체험이 있었기에 질병의 뿌리를 쓸 수 있었습니다.

기자 : 현대의학이 코로나19로 인해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최변 : 모든 질병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몸 바깥에서 찾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은 몸 바깥에 있는 코로나19바이러스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고, 몸 바깥에서 만들어낸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몸 안에 투입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려 하므로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로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는 하나하나의 바이러스마다 맞춤형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개발에는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수조 원의 비용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마다 팬더믹(pandemic) 상황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모든 시스템은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에 성공해도 그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다른 바이러스로 변하므로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허사가 되고 또다시 처음부터 또 다른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는 과정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로는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자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최변 :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원인과 해결방안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원인은 몸의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고, 몸의 면역력만 강해지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도 않고, 감염되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완치된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강한 면역력은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치료합니다. 따라서 강한 면역력은 범용 백신이자 범용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여기서 범용이란 모든 바이러스에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면역력만 강하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마다 그에 맞는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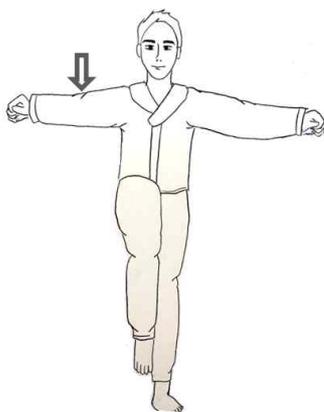
이렇게 우리 몸에는 면역력이라고 하는 최고의 백신과 항바이러스제가 이미 존재하는데, 현대의학은 외부세계에서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바람에 귀중한 생명과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기자 : 면역력이라는 단어는 흔히 사용하지만,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변 : 면역력은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하여 세포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의 크기입니다. 따라서 면역력은 한 마디로 ‘중심을 유지하는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유지하는 힘이 셀수록 면역력이 강하고, 약할수록 면역력도 약합니다. 그 힘은 일반적으로 힘이 센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힘이 센 사람도 면역력은 약할 수 있습니다.

기자 : 중심을 유지하는 힘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최변 : 중심을 유지하는 힘에는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과 ‘세포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들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의 총합이,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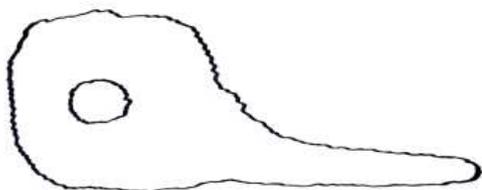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은 AK테스트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한쪽 다리로 중심을 잡고 선 자세에서 제삼자가 그 사람의 팔을 화살표 방향으로 눌렀을 때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유지하는 힘의 크기가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을 그 사람의 몸무게로 나누면 몸무게 1kg을 구성하

는 세포들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K테스트에서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의 크기가 40kg이고, 그 사람의 몸무게가 50kg이라면, 그 사람을 구성하는 1kg의 세포들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의 크기는 $40/50$ 으로 0.8이라는 숫자가 도출됩니다. 이 수치의 면역력의 크기입니다. 이 수치는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이 강할수록, 몸무게가 작을수록 커집니다.

기자 : 세포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이 면역력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최변 : 세포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이 약하면 세포는 중심을 잃고 그림과 같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세포가 찌그러지면, 세포와 비슷한 크기의 세균과 암세포는 찌그러져 쭈글쭈글해진 세포막에 붙어 기생하고, 세포보다 수천 또는 수만 분의 일 정도로 작은 바이러스는 쭈글쭈글해진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침입하여 세포의 에너지원인 미토콘드리아에 붙어 에너지를 빨아 먹으며 번식하게 됩니다.

찌그러진 세포는 면역기능을 상실합니다. 일반 세포가 찌그러지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면역세포가 찌그러지면 힘이 없어져 바로 옆으로 바이러스가 지나가도 꿈쩍도 하지 못하거나 그것들과 싸워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포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이 강하면, 일반 세포는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내고, 면역세포는 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포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과 면역력은 같은 개념입니다.

기자 : 세포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인 면역력의 강약은 무엇이 결정하나요?

최변 : 혈액의 미네랄밸런스가 이루어지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혈액의 미네랄

밸런스가 무너지면 면역력은 약해집니다.

기자 : 미네랄밸런스가 무슨 뜻입니까?

최변 : 모든 자연적인 물질은 92가지의 자연적인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수소, 산소, 탄소, 질소를 제외한 나머지 88가지 원소들을 미네랄 원소라고 합니다.

미네랄밸런스는 미네랄 원소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네랄밸런스는 88가지의 자연적인 미네랄 원소들이 적당한 비율로 골고루 존재하며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입니다.

기자 : 면역력과 세포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이 같은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미네랄밸런스가 이루어지면 세포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도 강해집니까?

최변 : 그렇습니다. 미네랄밸런스가 이루어지면 세포와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은 획기적으로 강해집니다.

기자 : 미네랄밸런스가 이루어지면 세포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이 강해지는 원리를 설명해 주십시오.



최변 : 세포는 사진과 같은 하나의 은하계이고 미네랄 원소들은 세포라는 은하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은하계가 활짝 펼쳐져 그 형태와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수천억 개의 다양한 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중심을 축으로 돌기 때문입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세포가 활짝 펼쳐져 그 형태와 중심을 유지하려

면 수조 개의 다양한 미네랄 원소들이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며 중심을 축으로 돌아야만 하는데, 미네랄밸런스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가능해지므로 세포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기자 : 미네랄밸런스가 이루어지면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구체적인 실험 자료가 있습니까?

최변 : 미네랄밸런스가 이루어진 용액에서 ‘면역세포와 폐세포’, ‘유산균과 고초균’,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 ‘간암세포와 폐암세포를 비롯한 일곱 종류의 암세포’의 성장실험을 의화학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과 유익한 미생물인 유산균과 고초균은 시간이 지날수록 활발하게 번식하지만, 해로운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대장균과 일곱 종류의 암세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에 관한 성장실험은 할 수 없었지만, 세균과 암세포가 사멸한다는 것은 바이러스도 사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세균이나 암세포보다 그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세포’와 ‘유익한 미생물’의 숫자가 많아지고, ‘세균’과 ‘바이러스’와 ‘암세포’의 숫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실험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물질도 세포와 유익한 미생물은 번성하게 하고, 세균과 암세포는 죽이는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질병의 뿌리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자 : 미네랄밸런스가 이루어진 용액은 어떻게 만드나요?

최변 : 강성철 박사가 발명한 미네랄톡톡이라는 물질을 물에 희석하면 만들어집니다.

기자 : 강성철 박사는 어떤 분인가요?

최변 : 전자공학 박사이자 의학박사로 과학 전 분야에서 높은 경지에 오른

분입니다. 미네랄톡톡은 강 박사님이 14년 이상 연구하여 개발한 식품으로 자연적인 미네랄원소들이 미네랄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물질입니다. 저는 강 박사님이 미네랄톡톡을 발명한 공로로 조만간 노벨상을 받을 거로 생각합니다.

기자 : 미네랄밸런스가 이루어진 용액에서 면역력은 어떻게 강해지나요?

최변 : 미네랄밸런스가 이루어진 용액을 마시거나 혈관에 수액으로 투입하면, 미네랄원소들이 혈액으로 흡수되므로 혈액의 미네랄밸런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혈액의 미네랄밸런스가 이루어지면, 혈액과 접촉하는 모든 세포의 미네랄밸런스도 이루어지므로, 세포의 중심을 유지하는 힘이 강해져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기자 : 혈액이 미네랄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최변 :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든 세포는 혈액 속에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포는 혈액이라는 바닷속에서만 살 수 있는 미세한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혈액의 상태가 세포의 면역력을 비롯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몸 안으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혈액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혈액의 상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활동과 번식을 비롯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네랄밸런스를 유지하는 혈액은 미네랄밸런스를 유지하는 용액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본 실험결과처럼, 미네랄밸런스가 이루어진 혈액 속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와 유익한 미생물은 번성하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찌그러지다가 사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생물 세계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야생의 세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야생에서 시베리아 호랑이와 아프리카의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싸우는 장소가 시베리아인가 아프리카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 안에서 면역세포와 바이러스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강자가 이길 것이고, 강자는 혈액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네랄밸런스가 이루어진

혈액 속에서는 면역세포가 강자가 되어 세균과 바이러스를 섬멸합니다. 더욱이 강력해진 면역세포는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침입해도 짧은 시간 안에 그것들을 제거할 수단을 자체적으로 찾아내는 시스템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야말로 무적의 존재가 되어 모든 바이러스를 퇴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네랄밸런스가 무너진 혈액 속에서는 바이러스가 강자가 되어 백전백승하며 세포들을 순서대로 점령하며 전진하게 됩니다.

기자 : 혈액의 미네랄밸런스는 왜 무너지나요?

최변 : 세포가 사용한 미네랄 원소는 에너지를 상실하므로 몸 바깥으로 배출되고, 몸은 새로운 미네랄원소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물과 음식을 통해 충분한 양의 미네랄 원소들을 섭취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혈액의 미네랄밸런스는 무너지다가 그 도가 지나치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미네랄밸런스가 무너질수록 혈액은 산성화되면서 끈적이므로 혈관은 막히고, 세포들은 산소와 미네랄원소, 영양성분이 부족하여 찌그러지므로 면역력이 떨어지다가, 미네랄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면 면역력은 제로에 가깝게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신장이나 간 질환이 있는 환자일수록 혈액의 미네랄밸런스는 심하게 무너지므로 면역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고령의 노인들과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사망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기자 : 혈액의 미네랄밸런스가 이루어지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도 빠르게 치료되나요?

최변 : 물론입니다. 혈액의 미네랄밸런스가 이루어지면 혈액 속에 있는 코로나19는 즉시 힘을 잃고 사멸합니다. 설사 일부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도 면역세포에 모두 잡아먹히게 되죠. 또한, 이미 세포 안으로 침투하여 자리 잡은 코로나19도 미네랄밸런스가 이루어진 세포내액에 의해 사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네랄밸런스가 이루어진 혈액에 의해 코로나19가 사멸하는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혈액은 단 40초 만에 몸 전체를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기자 : 혈액이 미네랄밸런스를 회복함으로써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치료된 사례도 있습니까?

최변 : 네,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되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미네랄톡톡을 섭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 있는 경북 상주 적십자 병원에 입원했던 이옥연(여성, 67세)씨는 3월 5일 입원하여 계속 미네랄톡톡만 섭취하다가 3월 11일과 12일에 연속하여 음성판정을 받은 후 13일에 완치 판정을 받은 후 퇴원했습니다.

또한,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박현주(여성, 62세)씨는 3월 4일 입원하여 3월 24일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차도가 없던 중, 3월 25일 미네랄톡톡을 처음 섭취한 후 다음날인 26일 1차 음성판정을 받았고, 27일 다시 음성판정을 받은 후 퇴원했습니다.

기자 : 아직도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미네랄톡톡을 섭취하면 완치될 수 있을까요?

최변 : 100명의 환자가 미네랄톡톡을 섭취했다면 100명 모두 완치되었을 겁니다.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환자라도 미네랄톡톡 용액을 마시기만 하면 빠르게 회복될 겁니다. 만일 증세가 너무 심해 미네랄톡톡 용액을 마실 수 없다면, 미네랄톡톡 용액을 혈관에 주사하면 쉽게 회복될 겁니다.

기자 : 미네랄톡톡을 마시거나 혈관에 주사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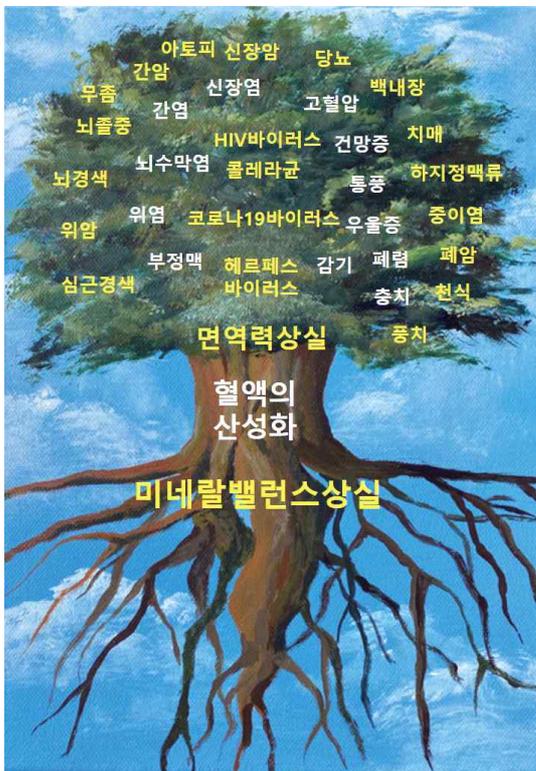
최변 : 미네랄톡톡은 천연 식품에서 미네랄 원소들을 추출하여 미네랄밸런스의 비율에 따라 혼합한 물질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식품으로 이미 일만 명이상의 사람들이 섭취했지만 단 한 건의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밥이나 국 같은 음식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밥이나 국이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미네

랄톡톡도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단, 사람의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금은 중대하고도 매우 급한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자 : 미네랄톡톡이 혈액의 미네랄밸런스를 회복시키고 암세포들도 죽인다면 바이러스 이외의 질병에도 효과가 있나요.

최변 : 물론입니다. 그 이유는 그림과 같이 모든 질병은 공통적인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는데 그것이 바로 혈액의 미네랄밸런스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미네랄밸런스를 상실하면 산성화되면서 세포들은 면역력을 잃고, 그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혈액의 미네랄밸런스가 회복되면 혈액이 맑고 깨끗해지므로 모든 질병은 뿌리가 잘리면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각종 암, 모든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인한 질병은 물론이고 이름도 생소한 희소한 질병들도 모두 치유되는 겁니다.

기자 : 혈액이 맑고 깨끗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최변 : 말 그대로 불순물은 없어지고, 맑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혈액검사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뿌리에서 미네랄톡톡을 섭취하기 전과 후의 제 혈액검사표를 공개했습니다.

혈전이 심장 동맥을 거의 막아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기로 예약한 환자들이 10일 정도 미네랄톡톡 용액을 섭취하자, 동맥을 막고 있던 혈전이 모두 녹아 내려 스텐트 시술을 받지 않게 된 경우가 속출한다는 점도 미네랄톡톡이 탁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좋은 예입니다.

사실 수많은 질병이 탁한 혈액이 혈관을 막음으로써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액이 맑고 깨끗해지면 그런 질병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기자 : 최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밝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남기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변 : 우리는 모두 관념에 빠져있습니다. 기존의 지식과 경험과 이념 등으로 이루어진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야만 코로나19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존의 관념을 넘어서는 방법은 새로운 시도를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기존의 관념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해보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고 난 이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에 직면할수록 고대의 지혜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고대 서양의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약으로 못 고치는 병이라도 음식으로 고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고대 동양은 약식동원(藥食同源)이라 하여 ‘약과 음식의 근원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먹을 수 없는 것은 약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네랄톡톡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먹을 수 없는 물질로 만들어진 약이 아닙니다. 기존의 치료방식만 고집하지 마시고, 일단 한 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미네랄톡톡으로 치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물에 희

석하여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떠한 부작용도 없이 환자들은 빠르게 완치되고, 세상은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잘 돌아갈 겁니다. 감사합니다.